

2강 메시아 사역의 시작(2장)

메시아의 첫 표적(2:1~11)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하셨다.

표적과 기사

요한복음은 단지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표적은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메시아의 표적은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기적들이다.

첫 표적의 의미

첫 표적은 첫 표적이기에 중요하다. 왜 주님은 포도주(술) 만드시는 것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는가? 왜 주님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곤경을 해결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셨는가?

인간의 곤경: 잔치는 벌어지지만 기쁨은 다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곤경을 보여준다.

정황: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씩 계속하기도 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소송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했다.

포도주의 의미

(시 104: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전 10:19)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쁨을 회복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써, 기쁨이 상실된 세상에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이었다.

(요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7: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들어진 포도주의 양:

(2:6)'두 세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여섯'

'통' = 9갤론 = 34리터

두 세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여섯 = 400~600 리터

메시아 사역의 '충만과 넘침'

(시 23:5)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롬 5:5)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엡 2:7)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엡 3:8)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의 의미

(2:4)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은 그 ‘때’를 향해서 긴박하게 진행되는 드라마
(요 17:1)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전 정화 사건(2:13~17)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타락한 성전 제사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상황

-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다 끊어졌다.
- 주전 166년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수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약 100여년 간 독립을 누렸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론의 직계자손인 하스모니안 왕가였다.
- 그러나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공격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이후 미미하게 존속하던 하스모니안 왕조는 주전 37년 에돔 자손인 헤롯—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헤롯 왕조를 세움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이때 부터 로마 총독이나 주권자들이 유대인 중 아무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교활하고 정치적 야심을 가진 부자들 중에서 대제사장직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이어졌다.
-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많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다가 로마 총독이 바뀌면서 새 총독—빌라도 이전—이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파면당하지만(주후 15년), 포기하지 않고 흥정을 해서 결국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앉히는데 성공한다(주후 18년). 명목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권세와 힘은 안나스에게 있었다.

당시 성전과 성전 제사의 상황

- 안나스는 자기 이름의 가게를 감람산에 가지고, 절기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제물을 팔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판매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폭리를 취했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은 제사드릴 짐승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와서 구해야 했는데, 안나스의 가게에서 파는 물건, 즉 검사를 거친 희생제물만 제사장들이 받아주게 되어있었으므로, 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일년에 한 차례 내는 반세겔의 성전세는 외국돈으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환전을 해야 했다. 안나스의 일가는 여기서도 많은 이익을 챙겼다.
- 결국 조금씩 더 편리를 추구하던 안나스는 성전 안에 지점을 내게 되었고, 이것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직면하신 모습이였다. 그들은 성전 뜰 안까지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 거기서 장사를 했고 돈을 바꿔주었다.
-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 일가와 결탁하여 성전을 둘러싼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고(산헤드린까지),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다.

- 이들 가운데서 아무도 성전 제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없었다. 모든 종교의 형식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경건의 모양은 여전했다. 그러나 참 경건은 사라져버린지 오래이고 의미없고 내용없는 종교의 형식만이 남게 되었고 종교는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대목이었다. 모세와 솔로몬이 알았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던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이다.

심판의 리허설

갈릴리에서 내려온 한 청년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오셔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리허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 곧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겔 9: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벧전 4: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2:18~22)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이심으로 나타내시는 사건이었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는(시 69:9)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영적 이해의 결핍을 드러낸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지적하셨다(마 12:39). 음란함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 음란한 마음은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마음이다.

(살후 2:9~10)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전이신 그리스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46년 동안 건축 중인 헤롯의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가리키셨다. 성전은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

주님의 이 '성전 모독' 언급은 나중에 주님께서 공회에 잡혀 심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마 26:61; 막 14:58)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행인들에 의해서(마 27:40; 막 15:29) 거짓 증거와 조롱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성전=주님의 몸=교회

오늘날의 성전 건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성도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하여 세우는 것

참 믿음은 인격적 관계다(2:23~25)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20:31). 이점에서 요한복음이 가지는 중요한 관심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

(2:23)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의 공생애 첫 유월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은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가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였는데,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는 23절에 ‘믿었으나’와 같은 단어이다. 둘 다 ‘믿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로써 요한복음은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인격적 관계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성도를 믿어주시는 인격적 관계이다. 이 인격적 믿음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1:42)”고 하심과 같이 그를 믿어주시시고, 나dana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1:50) 하심처럼 그들의 장래를 믿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의 속에 있는 악함과 음란함을 아셨고(마 12:39)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

거짓 믿음은 일방적인 믿음이거나,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을 가진다.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이고, 머리카 감정 혹은 의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참된 믿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준다.